



# 패키징으로 변화하는 유닛로드 시스템

## Unit-load System and Packa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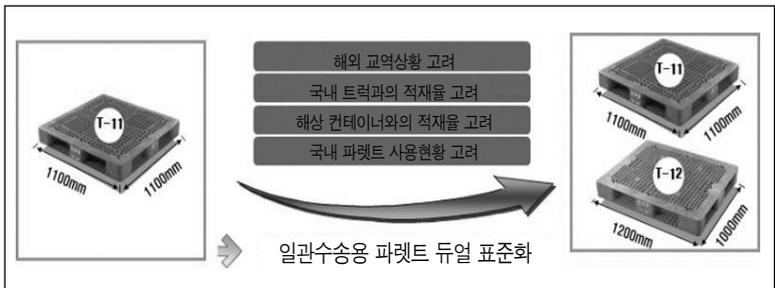
물류표준 중에서도 대표표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류와 패키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KS T0006(유닛로드 시스템 통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 고시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3-0727호).

개정된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닛로드 시스템 국가표준으로 사용해 온 T11형(가로 1,100mm, 세로 1,100mm) 파렛트에 T12형(가로 1,200mm, 세로 1,000mm)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개정취지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T11형 파렛트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물류표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단일 파렛트로 국내외 유통물류환경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고 물류표준의 유연성이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T11형의 경우 한국과 일본만이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T12형은 미국, 유럽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T11, T12

### 유닛로드 시스템통칙 변경 내용



※ 출처 : 국가물류표준종합시스템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3



김 종 경

기술표준원 신용합물류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형 모두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중국도 T12형의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형세이다.

유닛로드 시스템통칙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초기 T11형 파렛트 구축시점부터 꾸준히 있어 왔으나 200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가물류표준종합시스템 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T12형 파렛트 사용의 타당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권용장 박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T11형과 T12형의 복수표준화로 2020년까지 연간 약 560억 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고 차량 운행회수 절감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진척되지 못하다가 2013년 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일부 산업계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T11형 위주의 국가표준화의 성과가 무산될 수 있고 산업정책에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 KS T0006의 개정은 물류관련시설과 장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물류터미널, 창고 시설, 화물적재함, 파렛트화물 적재기준 등 국가물류표준규격만 40건 이상 정비되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고시나 정책도 일부 수정되어야

하는 방대한 후속작업을 필요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되는 표준이 각 부처 및 산업에 혼란없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물류표준화 방향 및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의미는 어느 파렛트 표준이 우수하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다음 두 가지 물류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첫째, 수출주도국가로서 FTA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에 발맞추어 거시적인 국가물류효율화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지역적인 표준화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가표준을 보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현재 T11형을 국가표준으로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반면, T12형은 중국, 유럽, 미국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역대상국이 큰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표준으로 국제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글로벌 유닛로드시스템이 지역유통환경에 맞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물류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파렛트의 표준을 완화하여 국가 및 지역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소매유통에 적합한 소형 운반용기나 패키징 표준을 개발하여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 소매유통의 경우 이미 파렛트보다 1/2 이나 1/4 크기인 톨컨테이너나 소형파렛트의 사용이 당연시되고 있고 패키징모듈(600×400mm)이 기본치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이명훈 소장의 주도 하에 T11 및 T12 파렛트 모두에 적합한 공용 패키징모듈(600×500mm 계열)을 개발하고 국제표준(ISO TC122(Packaging) ISO 3394)에도 반영한 상태이다.

글로벌물류시장은 전자상거래 확산, 3D 프린터의 등장 등으로 '제조-물류-유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기반(manufacturing based)물류에서 소비자기반(need based) 물

류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유닛로드시스템 통칙의 개정은 물류의 유연성 확보와 가치창조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서는 이번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의 개정은 물류패키징(logistical packaging)의 역할을 확대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패키징은 물류가치사슬(logistics value chain)의 중요한 축이다. 이번 개정이 단순한 파렛트와 패키징치수표준의 변경에서 끝나지 않고 물류패키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

**독 자 결 령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결령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